

■北 원자로 가동 중단 의미와 전망

핵 불능화 첫 발...난제 많아 낙관 일러

◇원자로 가동중단 의미는=2·13 합의에 명시된 초기조치는 영변.태천의 5개 핵시설 폐쇄 및 봉인과 폐쇄 상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다. 이들 조치의 본질은 핵무기 제조설비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날 핵시설 가동 중단으로 초기조치는 절반 이상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10kg(추정) 언저리에서 묶었지만 2002년 말 합의가 깨지면서 영변 핵시설 스위치가 다시 올라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핵무기 6~7개를 만들 수 있는 50kg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잠정적이거나 막게 된다. 따른 실질적 및 상징적 효과는 작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보면서 신뢰 축적의 계기를

매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약 750g을 만들 수 있는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이 55개월만에 가동중단돼 폐쇄될차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전기(轉機)를 맞게 됐다. '폐쇄'조치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적어도 폐쇄를 위해 이날 가동중단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1994)가 깨지고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 약 4년7개월만에 다시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플루토늄 추가 생산 억제...북핵 해결 청신호 IAEA 검증 착수 2~3주면 폐쇄·봉인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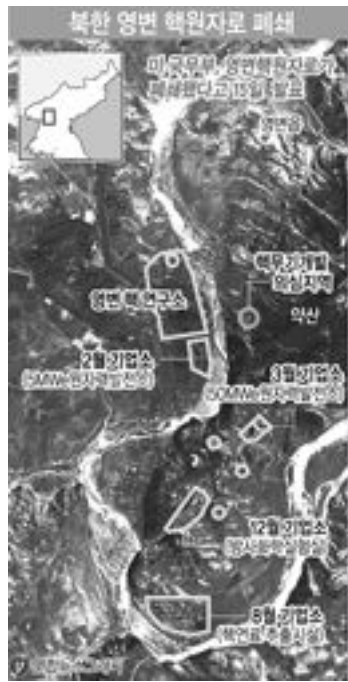
만드는 한편 다음 단계인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가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12일 서울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지만 문제는 초기단계 이후 2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평양을 거쳐 영변에 도착한 IAEA 감시검증단 10명의 임회하여 약 2~3주면 핵시설 폐쇄·봉인이 완

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관은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논의되는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에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지난 달 크리스토퍼 힐 국무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과정을 포괄적으로 풀어가는데 뜻을 모았다고 대북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지지도 여전하기에 주변환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고 및 불능화 협의 과정



에서 현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HEU 진상규명 문제, 핵시설 불능화의 수위와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싼 공방 가능성 등 난제는 곳곳에 놓여 있다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단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충돌한다면 이날 이른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의 유지 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연합뉴스



중국 인후이성 후난지역 주민들이 14일 아이들을 얻은 채 홍수가 덮친 도로를 힘들게 지나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 말들어 중국에서 폭우피해로 403명이 숨지고 105명이 실종됐으며 317만명이 피신했다고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1980년대 여피족, 1990년대 보보스족 이어 2000년대 떠오르는 엘리트는 '윤족'

30~40대에 거부 됐지만 조용히 자선 활동과 가족에 충실

1980년대에는 여피족(yuppies)이, 1990년대에는 보보스족(Bobos)족이 엘리트를 대표했다면 2000년대에는 윤족(yawns)이라는 새로운 엘리트가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여피족이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전문직 고소득층을 대변하고, 보보스족은 정신적으로 허피의 자유 생활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실리는 추구하는 디지털시대의 엘리트인 반면, 윤족은 '젊고 부자지만 평범하게 사는 사람'(young and wealthy but normal)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자산 붐 시대를 거치면서 30~40대에 수천만달러 또는 수십억달러의 부를 일군 사람들로, 자신의 부를 요트나 제트기 등을 사는 데 소비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사업

등에 쓰면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윤족은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부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부를 이뤘고, 옆집에 사는 백만장자라도 부의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사람들이다.

또한 여피족의 상징이 아르마니 옷에 BMW였다면 여피족의 상징은 도커 같은 평범한 캐주얼 의류 같은 것일 정도로 맵시있기 보다는 매우 투박하다. /뉴욕=연합뉴스

빈 라덴, 비디오 등장 미국은 현상금 2배로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하는 알-카에다의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 화면. 이 이미지는 인텔센터(IntelCenter)가 15일 제공했다.미 상원은 알-카에다가 테러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내 잠입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들이 나올자 지난 13일 빈 라덴의 체포나 사살 및 관련 정보제공에 내건 보상금을 5천만 달러로 2배 증액했다. /AFP=연합뉴스

北 '남한내 핵무기' 왜 잇따라 거론하나

핵군축회담 선행 포석인 듯

북한이 주한 미군의 '남한내 핵무기 문제'를 잇따라 거론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인민군 관문점대 표부 대표 담화를 통해 미국과 양자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남한내 핵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대남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를 내세워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남한의 중유 제공 1차분 북한 도착과 함께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2·13 합의 이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북한은 관문점대표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임의의 지역, 구체적으로 조선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하면서도 소형화 된 핵무기를 해마다 123개씩이나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핵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이 왜 힘든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등에서 '북한 핵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항변의 표시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이 2.13합의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기존 핵무기 문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분리해 미국과 직접적인 핵군축 회담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제 선점' 포석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 "北, 군사회담 제안하면 논의"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톱 케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이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북미간의 의견교환은 아직까진 어떤 식으로든 없었다"며 북한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할 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붉은 사원 무력진입' 피의 보복?

파키스탄 軍 차량에 폭탄 차량 들진 24명 사망

파키스탄에서 14일 이슬람 급진세력 '탈 마스지드(붉은 사원)'의 무력진입에 대한 보복테러가 발생해 군인 24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

파키스탄 군의 와히드 아사드 소장은 와지리스탄 북쪽지구의 주요 도시인 미란사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다즈나라이 마을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군 차량에 들진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붉은 사원의 무력진입에 대한 보복테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라마바드AP·AFP=연합뉴스

日 아베 연쇄 추돌사고 선거유세 지원 이동중

7·29 참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오사카를 찾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태운 승용차가 14일 연쇄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사고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오사카의 국도에서 아베 총리의 비서관을 태운 차량이 교차로에서 앞에 있던 경찰 차량을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추돌을 당한 경찰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서 가던 아베 총리의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아베 총리의 차량과 경찰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사들이 모여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수업 모집. 신청처: 마술마스터 아카데미 02-63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급 1차 시험 합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급 1차 시험 합격. 신청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급 1차 시험 합격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신청처: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